기관 '미확약' 물량에 '따상' 성패… 상승랠리 가능성 높아

카카오페이 내일 코스피 입성

따상 성공시 시총 30조 돌파
"오버행 제외 물량 5% 남짓"
이번주 리오프닝 업종 청약 봇물

지난달 25일 삼성증권 영업점에서 투자자들이 카카오페이 공모주에 청약을 넣고 있다. /뉴시스

오는 3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는 카카오페이 주가에 관심이 쏠린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 카카오페이의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가격상승제한폭까지 오르는 것) 여부다. 공모가가 9만원인 카카오페이가 따상을 하려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18만원에 형성된 뒤 가격제한폭(상한가, 30%)까지 상승해 마감해야한다. 이 경우 상장 첫 날 카카오페이의 종가는 23만4000원이 된다.

◆카카오페이 '따상' 관심

카카오페이는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따상에 대한 금융투자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카카오페가 따상에 성공한다면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11조7330억원으로, 30조5059억원까지 뛴다. 이는 카카오뱅크의 시총 29조9788억원(10월29일 종가 기준)보다 더 큰 규모다. 기아차의 시총 34조4964억원에 이어 코스피 시가총액 10위에 올라서게 된다.

업계에선 상장 첫날 기관의 '미확약' 물량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높은 외국인 미확약 비중은 상장 초기 주가흐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카카오페이의 국내외 기관 배정 물량은 전체 공모주식 1700만주의 55%인 935만주다.

현재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의무보유확약을 제시한 비율은 26%, 미확약 비율은 74%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지수편입'이 유력해 오버행(잠재적 매물) 리스크보다 상승랠리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공모가만으로도 시총 30위권에 해당한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지수 편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대단한 확신이 없는 이상 비중을 줄이는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며 "기관투자자의 보호예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카카오페이 상장일에 기존주주 오버행을 제외한 유통물량은 고작 5% 남짓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리오픈닝 기대감…IPO 대기 주목

위드코로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번주 IPO 시장에는 리오프닝 업종이 줄줄이 수요예측과 청약에 돌입한다.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기업은 SM상선, 트윔, 알비더블유 바이옵트로 등 4곳이다. 일반 청약에 나서는 기업은 디어유, 아이티아이즈, 지오엘리먼트, NH올원리츠 SM상선 등이다.

특히 이번주는 엔터 분야 기업 2곳이 모습 드러낸다. 1~2일에는 팬 플랫폼 기업 디어유가 청약을, 5~8일에는 가수 마마무의 소속사 알비더블유는 5~8일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디어유는 지난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2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인 비트나인과 디지털 금융서비스 기업 아이티아이즈가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이어 2차전재 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켐이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3~5일에는 NH올원리츠, 4~5일에는 SM상선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이뤄진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지오엘리먼트(2~3일) 등도 청약을 진행한다.

특히 SM상선은 올 하반기 운임이 추가로 상승하여 올해 영업이익이 1조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에 주목 받고 있다.

NH올원리츠는 NH농협리츠운용의 공모 상장 리츠로, 농협그룹 임차수요를 흡수해 3년 내 운용자산을 1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황현준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향후 K-POP 아티스트와 더불어 해외 유명 아티스트, 스포츠 스타까지 입점이 확대될 경우 프라이빗 시장 기반의 구독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고승범 "소규모 기업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금융위원장〉

제4회 회계의날 기념식

회계발전 기여한 8명 정부 포상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부담 완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고 치사를 했다. /금융위원회

"오는 2023년부터 소규모 상장기업에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회계개혁의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개혁조치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회계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개혁의 동반자인 만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 한다.

고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만큼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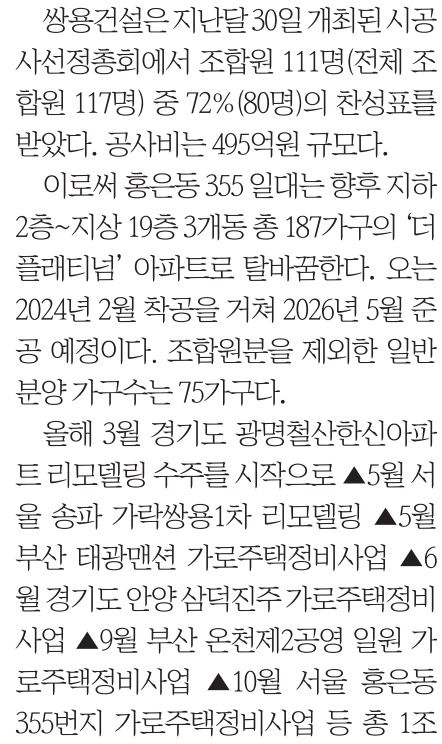
고 위원장은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인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도 줄인다.

고 위원장은 "감사인지정제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가 증가하고,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에 따라 기업들이 감사인과 감사업무에 대해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인 지정제도 에 대한 보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정부가 주관하는 첫 번째 기념식이다.

기념식에서는 회계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김문철 경희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 대통령 표창은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서강현 현대자동차 부사장·김진광 원진회계법인 대표에게, 국무총리표창은 이목희 금융감독원 부국장·박세환 회계기준원 상임위원·한종수 이화여대 교수에게 각각 돌아갔다 /나유리 기자 yul115@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쌍용건설

쌍용건설

홍은동 주택정비사업 수주

쌍용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55 일원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시공사선정총회에서 조합원 111명(전체 조합원 117명) 중 72%(80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공사비는 495억원 규모다.

이로써 홍은동 355 일대는 향후 지하 2층~지상 19층 3개동 총 187가구의 '더 플래티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오는 2024년 2월 착공을 거쳐 2026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수는 75가구다.

올해 3월 경기도 광명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수주를 시작으로 ▲5월 서울 송파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 ▲5월 부산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6월 경기도 안양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9월 부산 온천제2공영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10월 서울 홍은동 3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1조 5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주춤하면서 규제가 적고 사업속도가 빠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야 진출 후 5개월여만에 서울 사업 수주라는 성과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도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규모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우기자 ywj964@

채권업계 종사자 45% "한은, 기준금리 인상할 것"

금투협 11월 채권시장지표 산출
전월比 동결 응답 ⬇ 인상 응답 ⬆

국내 채권업계 종사자 가운데 45%가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감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 조사해 '2021년 11월 채권시장지표(BMSI)'를 산출한 결과 종합지표가 한달 전보다 7.1포인트 하락한 86.4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금투협은 "인플레이션 부담에 따른 글로벌 금리의 상승 추세가 이어져 11월 종합 BMSI는 전월 대비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 인원의 응답으로 산출되는 BMSI는 100 이상이면 시장이 호전, 100이면 보합, 100 이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부문별로는 금리전망 BMSI가 65.0으로 전월(66.0) 대비 보합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응답자 45.0%는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45.0%는 인상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준금리 동결 응답자가 전월의 50.0%에서 줄고, 인상 비율은 전월의 42.0%에서 상승했다.

물가 BMSI는 63.0으로 전월(82.0) 대비 19.0%포인트 하락했다,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협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5개월째 5%대를 지속함에 따라 11월 물가상승 응답자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40.0%가 물가상승에 응답해 전월(26.0%) 대비 14.0%포인트 상승했고, 물가보합 응답자 비율은 57.0%로 전월(66.0%) 대비 9.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BMSI는 83.0으로 환율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90.0) 대비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여 11월 환율상승 응답자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31.0%가 환율상승에 응답해 전월(27.0%) 대비 4.0%포인트 상승했고, 환율하락 응답자 비율은 14.0%로 전월(17.0%)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